

# 신약 본문비평과 성서 번역

쿠오-웨이 핑\*

## 1. 서문

이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모든 텍스트의 번역은 (최초의 문헌이라 불리는) 원본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신구약을 포함한 대부분의 고대 문헌들의 원본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뢰성 있는 번역을 원한다면 번역은 최소한 가장 원본에 가까운 사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본 (일명 manuscript, MSS라 불리는)을 이용한 원본의 복구가 필요하다.

현대 인쇄술의 발명 이전에 어떤 문헌이든 사본은 서기관의 힘든 필사에 의해 전달되었다. 그러므로 신약을 포함한 고대 문헌들의 사본은 필사자의 간과나 변경(계획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으로 인해 오류들이 담겨 있기 쉽다. 그래서 본문이 원문에 가깝게 복구될 수 있도록, 현존하는 사본과 상응하는 문헌들(함께 ‘증거들’이라 불린다)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연구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본문 비평이라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의 목적은 신약성서의 본문비평과 그 결과들을 성서 번역에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 간략한 개론적 소개를 하는 것이다.

## 2. 신약 성서의 초기 전달과 그 형성

미리 언급한 것과 같이, 신약문헌의 본문비평의 과제는 증거들의 연구를 통해 원문에 가까운 본문을 재구성하는 것이다.<sup>1)</sup> 증거들의 가치와 중요성은 그러나 우리가 신약문헌들의 초기 전달과 형성에 관하여 알기 이전에는 정확히 알기 힘들다.<sup>2)</sup>

---

\* 아시아태평양지역 번역 컨설턴트.

1) 원래의 본문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것이 본문비평의 첫 번째 목적인지는 논쟁이 많이 되는 부분이다. 이것에 관하여 좋은 참고문헌 목록은 Roger L. Omanson,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n Discover the Bible* (ed. Roger Omanson; UBS, 2001), 135n1. 그러나 성서 번역에 관하여는 원문의 재구성 이 신약 문헌들의 본문비평을 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신약성서는 독립적으로 쓰여졌고 초기단계에는 개별적으로 전달된 27권의 집합체이다. 신약성서의 원저자들은 모두 1세기의 후반 기간에 그리스어로<sup>3)</sup> 집필하였다.<sup>4)</sup> 신약문헌들의 집합과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초기에 모아진 것은 아마 바울의 서신들이었을 것이다: 열네 개의 바울 서신(히브리서를 포함한)은 2세기 중반에 한 질이 되었다.<sup>5)</sup> A.D. 180년 전에는 tetraeuagglion의 존재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없다.<sup>6)</sup>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공동서신의 권위는 4세기 후반까지 인정받지 못했다.<sup>7)</sup> 위에서 언급된 본문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신약문헌들은 본문비평의 시각으로 볼 때 단 한 개의 산출물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신약문헌의 본문비평은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만 한다.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신약 본문의 역사에 대한 것들도 있다. 먼저 초대 교회의 확장을 자세히 추적해 보면 우리는 3세기에서 4세기까지의 결과물들이 아마 지중해, 소 아시아, 그리스의 에게 해의 연안, 팔레스타인과 북아프리카의 현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sup>8)</sup> 교회사의 초기 시절 신학적 학문적 관심의 관점에서 서방과 로마의 역할은 주로 부수적인 것이었다.<sup>9)</sup> 그러므로 텍스트 유형(아래를 보라)의 발전에 관한 어느 이론이든 이러한 사실은 고려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디오클레티안의 핍박(ca. 303-313)과 콘스탄틴 시절은(AD 337) 신약문헌들의 본문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두 시대였다. 디오클레티안 핍박에 관해 중요한 특징은 교회 건물과 거기서 발견된 사본의 파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

2) 이 사실은 Kurt와 Babara Aland에 의해 적절하게 강조되었다. in Roger L. Omanson,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n *Discover the Bible* (ed. Roger Omanson; UBS, 2001), 135n1.

3) 파피아스(대략 60-130년)와 이레네우스(대략 130-200)의 외적 증거는 마태복음에 관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된 원본이 있다고 지적하나 내적 증거는 그리스 자료들을 사용한 그리스 원문을 보여준다.

4) 어떤 학자들은 신약문헌들의 일부가 아마 2세기 전반에 집필되었으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5) A.D. 95년경 바울 서신의 묶음에 관해서는 신약성서 이외에 가장 오래된 기독교 문헌인 '클레멘트1서'에 암시되어 있다. Aland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49. 6 4복음서의 모음집은 4복음서와 똑 같은 권위를 지녔다, Aland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48-49.

6) 이는 4복음서의 모음집은 4복음서와 똑 같은 권위를 지녔다. Aland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48-49

7)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권위가 서방교회에서는 2세기와 3세기와 같은 초기 시절에 인정받았지만 동방교회에서는 이 기간이 훨씬 오래 걸렸으며 동방정교와 네스토리안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권위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Aland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49-50; also L.M. McDonall, "Canon," in *Dictionary of the Later New Testament and Its Developments* (eds. R.P. Martin and P.H. Davids; Dawners Grove: IVP, 1997), 134-44.

8) 비교, Aland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53-54.

9) Aland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54.

해 펴박이 그친 후 신약성서의 사본은 전반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sup>10)</sup> 그러나 디오클레티안의 펴박 이후 기독교의 놀라운 성장은 사본의 부족에 대한 문제를 절실하게 느끼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로 많은 수의 복사집들이 생겨났고 이는 사본에 대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이런 생산 센터들에서 사용된 표본은 주로 동방 전체의 관구들의 주교들을 배출한 안디옥의 해석학교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러한 텍스트 유형들이 널리 퍼져나갔고 드디어 콘스탄틴 시대로 돌입했을 때 이 사본들은 제국의 도시인 콘스탄티노폴에서 사용된 텍스트 유형에 영향을 주었다.<sup>11)</sup> 이런 유형의 본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은 아마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 구조로 교회가 지배되었던 북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주변 지역일 것이다.<sup>12)</sup> 그 곳에서는 아마 다른 교회 행정으로 인해 다른 유형의 본문들이 생산되었을 것이다.<sup>13)</sup>

세 번째로 초대교회의 선교 활동은 신약 정경이 아직 형성될 당시 여러 고대 역본(시리아, 라틴, 콥틱)들을<sup>14)</sup> 생산해 냈다. 그러므로 이런 초기 역본들은 신약 문헌들의 본문 역사를 이해하는데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데,<sup>15)</sup> 이러한 역본들은 신약정경들이 공식적으로 확립되기 이전에도 존재하였다.

### 3. 증거들과 그들의 상징

위의 개론적 토론은 현존하는 그리스 신약 사본과 초기 신약 역본들이 신약 문헌들의 증거들에 포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위의 두 세트의 증거 이외에도 두 개의 추가 세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스 신약 성구집과 신약에 관한 교부들의 인용문이 있다.

그리스 사본은 세 개의 하위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파피루스 사본, 언설체(혹

10) Aland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65.

11) Aland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65-66

12) Aland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65

13) 신약의 본문비평의 가치를 지닌 다른 초기 역본들은 이집트, 아르메니아, 그레고리안 역본들을 포함한다. 초기 역본에 관한 자세한 토론은 B.D. Ehrman and M.W. Holmes (ed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n Contemporary Research* (Studies & Documents 46; Grand Rapids: Eerdmans, 1995), chs. 5-11.

14) 4복음서의 시리아 역본에 관해 현존하는 가장 초기 사본은 2세기 말이나 3세기 초기 연대의 본문 모양을 반영한다. 고대 라틴 역본 혹은 역본들은 3세기 동안 북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나타나서 회람되었다. 신약의 일부분들은 3세기 초에 콥틱어의 사투리인 사히딕(Sahidic)어로 번역되었다. B.M. Metzger,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3rd, enlarged ed.; Oxford: OUP, 1964, 1992), 68-69, 72, 79.

15) 이 주제에 관한 자세한 토론은 Aland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75-77; Metzger,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1-19.

은 대문자) 사본, 그리고 소문자 사본. 모든 신약 문헌들은 아마도 그 시대의 모든 문학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파피루스에 쓰여졌을 것이고 파피루스에 복사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초기 사본은 언셜체(혹은 majuscule라 불리는)로 된 대문자 사본이다. 4세기가 시작되기까지는 양피지가 글을 쓰기 위한 재료로 대중적이었는데, 필기 문자로 언셜(uncial, 둥근 대문자 필기체)이 사용되었다. 9세기가 시작되면서 소문자(minuscule이라 불리는)가 발명되었고 복사업무는 곧 9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현존하는 가장 초기 소문자 사본처럼 필기체의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사본의 연대를 표기하기 위해서 대문자 알파벳(예를 들어 A, B, 그리고 C)을 사용했는데, 때때로 어깨글자를 포함한 것(예를 들어 D<sup>ca</sup> and D<sup>p</sup>)을 사용하기도 했다. 아주 드물게 히브리 문자들이 사용되기도 했다(예를 들어 Ⲛ). 대문자 사본의 숫자가 라틴과 그리스 알파벳의 수를 넘어섰을 때 새로운 표기 방법이 카스퍼 레네 그레고리(Casper René Gregory)(1846-1917)에 의해 고안되었고 이 시스템은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Gregory 이후 파피리는 어깨글자를 사용하는 약자 ϣ(예를 들어 ϣ<sup>46</sup>), 약자 0로 시작되는 숫자(with Ⲛ = 01, A = 02, B = 03, C = 04, D<sup>ca</sup> = 05, D<sup>p</sup> = 06, etc.), 아랍 숫자와 함께 하는 소문자(e.g., 1, 13, 33, etc.), 그리고 접두사와 함께 하는 성구집 ℓ(e.g., ℓ 1)이 사용되었다.<sup>16)</sup>

지금은 94개의 현존하는 파피루스 사본이 있다. 가장 오래된 것은 대략 125년쯤의 것으로 요한복음 18장(31-33, 37-38)이 포함된 ϣ<sup>52</sup>가 있으며 가장 나중 것으로는 8세기 것이 있다.<sup>17)</sup> 현재 299개의 대문자 사본이 등록되어 있다. 가장 이른 것은 2세기 말 혹은 3세기 초의 것이고 가장 나중 것은 11세기 것이다.<sup>18)</sup> 9세기와 그 이후의 것으로 등록된 소문자 사본은 대략 2,800개가 있다.<sup>19)</sup>

성구집 표기법의 목적은 교회가 1년 동안 특별한 날에 정해진 성서의 발췌문을 읽음으로 확정된 교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 성구집은 신약 본문의 발췌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2,280개 이상의 성구집 사본이 등록되

16) See Aland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72-3.

17) 자세한 토론은 Aland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81-102; Eldon Jay Epp, *The Papyrus Manuscripts of the New Testament*, in Ehrman and Holme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n Contemporary Research*, ch. 1.

18) 자세한 토론은 Aland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81-2, 103-28.

19) 자세한 토론은 Aland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81-2, 128-58; Barbara Aland and Klaus Wachtel, *The Greek Minuscule Manuscripts of the New Testament*, in Ehrman and Holme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n Contemporary Research*, ch. 3.

어 있다.<sup>20)</sup> 그레고리 표기법은 초기 역본들과 양피지 증거들의 표준적 상징들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신약의 초기 역본에 관해 말하자면 성서공회(아래에서 소개할 것임)의 두 개의 비평적 편집본들은 서로 비슷한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서론 부분에 소개되어 있다.<sup>21)</sup> 교부들의 신약 인용문들은 보통 교부들의 이름으로 언급되어 있거나 혹은 비평적 편집본에 나온 그들의 약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약자의 뜻은 서론 부분에 설명되어 있다.<sup>22)</sup>

#### 4. 방법론과 원본의 재구성을 위한 방법과 가이드

미리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 신약 본문비평은 3,200개의 그리스 본문 사본, 2,200개 이상의 그리스 성구집 사본, 몇 개의 초기 언어 역본들, 그리고 원문과 매우 가깝게 재구성된 신약 인용구들을 사용한 초대교회 교부들의 목록을 다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문비평에는 일정한 방법론과 이런 작업을 위해 필요한 원칙들이 요구된다. 19세기 초 현대 신약 본문비평의 발전 이후 이런 도전적인 과제를 풀기 위해 여러 방법론들이 개발되었다.<sup>23)</sup>

본문 비평에 있어 비록 오직 이 두 원칙만 실무에 유용한 것은 아니라도 지난 이백여 년 동안의 발전을 통해 대부분의 본문 비평가들이 동의하는 매우 중요한 일반적 두 가지 원리가 있다: (1) 비록 어떤 독법이 원문에 가까운지를 결정하는 증거의 질만큼 중요하지 않아도 증거의 연대와 분량, 그리고 (2) 적합한 본문의 평가에 이르는 것,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 둘 다 정확히 평가되어

20) 자세한 토론은 Aland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81-2, 163-70; Carroll D. Osburn, *The Greek Lectionaries of the New Testament*, in Ehrman and Holme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n Contemporary Research*, ch. 4.

21) Barbara Aland et al (eds.), *The Greek New Testament* (4th revised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4), 22\*-29\*; Barbara Aland et al (eds.),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27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898, 1993), 63\*-72\*.

22) E.g., Aland et al (eds.), *The Greek New Testament*, 29\*-36\*; Aland et al (eds.),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72\*-6\*.

23) 누구든지 신약 본문비평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신약 본문비평의 방법론의 발전사에 대하여 친숙하길 바란다. 이에 대한 좋은 입문은 Metzger,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ch. IV and VI. 텍스투스 리셉투스(*Textus Receptus*)의 발전 그리고 그 문제점은 또한 친숙해야 할 주제이다. 여기에 대한 좋은 토론은 Metzger,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ch. III. 더 발전된 토론은 Ehrman and Holme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n Contemporary Research*, chs. 16,17,19-21 and Eldon J. Epp and Gordon D. Fee (eds.), *Studies in the Theory and Method of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Studies & Documents 45; Grand Rapids: Eerdmans, 1993).

야 한다.<sup>24)</sup>

어떤 MS의 질에 기여하는 사실 중의 하나는 본문이 속해 있는 텍스트 유형과 관련되어 있다. 본문비평의 사본에 대한 부지런한 연구들은 대부분의 사본이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텍스트 유형으로 느슨하게 분류할 수 있음을 발견했는데 같은 텍스트 유형에 속하는 사본은 이문(異文) 단위(units of variation)의 수에 속하는 같은 다른 읽기로 묘사될 수 있다.<sup>25)</sup> 세 개(혹은 네 개)의 텍스트 유형은 다음과 같다.<sup>26)</sup>

대부분의 파피루스 사본(e.g., P<sup>45</sup>, P<sup>46</sup>, P<sup>47</sup>, P<sup>64+67</sup>, P<sup>66</sup>, P<sup>75</sup> etc.)에 의해 대표되는 알렉산드리아 텍스트 유형과 4세기와 5세기(such as, B, 057, and A와 관련된 사본)의 여러 개의 대문자 사본은 오늘날 대부분의 본문 비평가들에 의해 원형에 가장 가까운 텍스트 유형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런 텍스트 유형은 먼저 토론된 것과 같이 북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주변지역에서 발전된 것이다.

두 번째로 서방 유형이라 불리는 것이 있다. 이 유형의 이름은 초기 본문 비평가들의 오해에서 생겨난 것인데 신약의 형성과 전달과정에 관해 우리가 미리 토론한 내용에 따르면 이 것이 서방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유형이 서방이라 생각된 주된 이유는 이 유형이 아직 원본복구에 관심 없이 개정판을 낸 동방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고대 라틴과 불가타가 이런 유형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사본은 D<sup>ca</sup> 혹은 05(그러므로 때때로 D 사본이라고도 불린다)가 있으며 이는 셀 수 없는 추가, 전환법, 그리고 생략으로 특징지어진다.

세 번째는 소문자 사본의 80%에 속하고 대부분 성구집 사본으로 이루어진 비잔틴 유형이다. 이런 유형은 콘스탄티노폴의 제국적 문맥에서 발전된 것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문학비평가들로부터 원문을 재구성하는데 가장 가치가 적은 것으로 평가받는데 이유는 이 유형의 편집 작업이 주로 본문이 아닌 실천적,

24) 이것은 성서공회의 비평적 편집본의 결과를 위해 사용된 사리에 맞는 절충적 접근(reasoned eclectic approach)을 나타낸다. 비록 이것이 오늘날 접근법의 주된 흐름이지만, 요즘은 모든 본문 비평가들이 이 원리를 추종하고 있지는 않다. 사리에 맞는 절충적 접근(reasoned eclectic approach)을 위해서는 Michael W. Holmes, *Reasoned Eclecticism in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in Ehrman and Holmes (ed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n Contemporary Research*, 336-60; its practice, see Metzger,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207-46.

25) 이문 단위(A unit of variations)는 사본 안의 두 개 이상의 다른 읽기가 본문에 가능한 경우이다.

26) 여기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좋은 토론은 Omanson,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341-2. 그리스 사본의 분배의 세기와 카테고리에 대하여는 Table 8 in Aland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159-62, 332-37.

예전적, 혹은 신학적 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비잔틴 유형은 안디옥 학파에서 개발한 유형의 계속된 발전이었다.

본문비평의 학도들은 처음 배울 때부터 대부분 유명하고 중요한 사본과 그 유형에 관해 친숙해져야만 한다. 그렇지만 유형은 일반적으로 서술적인 용어이다. 학생들은 또한 같은 유형, 혹은 알렉산드리아 유형의 최고 사본에 속한 사본이라도 오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 원본(혹은 원본에 매우 가까운 본문)을 재구성하기 위해 본문비평은 텍스트 유형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한다. 이를 위해, 본문비평은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를 평가하기 위해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매우 간결한 요약은 여기 인용된 오만선(Omanson)의 논문에서 발견된다

(1) 내적 증거 (a) 가장 오래된 사본이 원래 독법을 간직했을 가능성이 높다. (b) 다양하게 다른 지역들에서 발견된 한 다른 읽기가 오직 한 지역에서 발견된 것보다 원본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c) 현존하는 사본들의 절대 다수가 뒷받침하는 독법은 이 사본들이 한 공통적인 조상으로부터 나올 수 있기에 절대적으로 최고의 읽기라고 할 수는 없다. 사본들은 그러므로 ‘무게를 재야 하며’(평가해야 하며) 단순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어떤 특정 이문을 지지하는지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

(2) 내적 증거. (a) 짧은 읽기가 보다 원원본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경우, 필사자들은 본문의 단어들을 삭제하기 보다는 추가한다. (b) 일반적으로 필사자들은 어려운 본문을 쉽게 고치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인 경우는 없기에 더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읽기를 따라야 한다. (c) 저자의 문체와 단어에 최고로 일치하는 읽기가 원형일 가능성이 높다. (d) 비슷하게, 문맥에 가장 잘 들어맞는 읽기가 선호된다.<sup>27)</sup>

이런 지침들을 맹목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본문비평의 학생들은 이 학문이 부분적으로는 과학이고 부분적으로는 예술임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탁월하고 적합한 본문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핵심적이다.<sup>28)</sup>

27) Omanson,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142. 더 자세하고 정교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는 Aland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280-82.

28) 이 분야에 대한 초보자들은 Alands와 Metzger가 집필한 교과서를 볼 것을 권장한다. Aland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282-316; Metzger,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219-46.

## 5. 두 성서공회의 비평적 편집본

두 가지 다른 목적으로 인해, 성서공회들은 다른 두 비평적 편집본 신약성서를 제공하고 있다: 네스틀레-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의 27판과(Nestle- Aland<sup>27</sup>), *The Greek New Testament*의 4판 편집본(USB<sup>4</sup>)이 있다. 네스틀레-알란트 27판은 학문적인 포켓용 편집본으로 제작되어 작은 두께에 신약의 이문들(variants)에 대한 정보가 많이 들어 있다. 이 편집본은 12세기 초 전통까지 추적할 수 있다.<sup>29</sup> 포켓용 편집본인 네스틀레-알란트 27판은 본문에 관한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참고 정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더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더 오래된 편집본인 폰 소덴(von Soden)이나 티센도르프(Tischendorf)<sup>30</sup>, 또한 현재 진행중인 국제 그리스 신약성서 프로젝트(International Greek New Testament Project)(IGNTP)의 결과를 참조해야 한다.

UBS 4판은 다른 관심을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성서 번역을 위한 기초 본문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번역자에게 중요한 혹은 본문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본문들의 이문 단위들만을 선별하여 놓았다.<sup>31</sup> 이는 번역자들에게 어떻게 주요 본문을 결정하고 주석들이 어떤 독법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평가 시스템은 성서 번역에 매우 유용하므로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을 이에 대한 토론을 위해 할애할 것이다.

## 6. 성서번역에 있어 UBS 4판의 본문비평장치의 사용

UBS 4판에는 1,438 페이지가 본문비평장치로 표시되어 있는데 모든 비평장치의 시작은 네 단계의 확실성(이는 {A}에서 {D}로 표시된 평가들) 중 하나로 되어 있다. 이 편집본의 도입에 따르면

문자 A는 이 본문이 확실함을 나타낸다

문자 B는 이 본문이 거의 확실함을 나타낸다.

문자 C는 그러나 위원회가 어떤 이문을 본문으로 정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

29) 이 편집본의 역사에 대하여는 Aland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19-36 and Aland et al (eds.),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44\*-45\*.

30) Hermann Freiherr von Soden, *Die Schriften des Neuen Testaments* (1913); Constantin von Tischendorf, *Editio octava critica maior* (1869-72).

31) "Preface to the First Edition" in Aland et al (eds.) *The Greek New Testament*, viii-x.

있음을 나타낸다.

문자 D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데 이는 위원회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음을 나타낸다.<sup>32)</sup>

이 평가도구의 실질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편집자가 인쇄된 텍스트에 {A} 혹은 {B} 평가를 줄 때 번역자는 UBS 4판의 주 본문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편집자가 {C}에서 {D} 평가를 줄 때 번역자는 비평적 비평장치에 있는 다른 읽기를 더 자유롭게 번역에 사용할 수 있다.<sup>33)</sup>

번역이 다른 읽기를 지시하는 각주를 사용하고자 할 때, 원칙적으로 {A} 혹은 {B} 평가로 된 비평장치의 본문일 경우 그리고 만일 인쇄된 텍스트가 번역되어 있을 때는 주를 달 필요가 없다. 그러나 비평장치가 {C} 혹은 {D}로 평가된 본문이라면 각주를 다는 것이 권장된다. 물론 이런 지침이 맹종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번역자는 신앙의 공동체의 전통을 고려해야 하며 모든 사안들을 개별적으로 다루어야만 한다.

## 7. 최종적 논평

이러한 논의점에서 볼 때 두 본문이 같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을지라도 그 배후에는 평가 이전의 이론적 해석의 차원에서 사실 서로가 매우 다를 수도 있다. 계속된 평가에 대한 토론을 제공하는 UBS 그리스어 신약전서 3판 편집본 이후 참고용으로 본문주석(*Textual Commentary*)이 제공되고 있다.<sup>34)</sup> 이 주석서는 논점들과 이론적 해석 그리고 가끔은 평가 배후의 과정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주석은 신약성서의 본문 비평에 관한 특정한 기초적 지식을 전체로 한다. 그러므로 이 본문주석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번역자는 만일 그들의 번역에 그리스어 본문의 본문 현상(textual phenomenon)을 진정 반영 하길 원한다면 신약 본문 비평의 적절한 지식을 얻기를 제안하며 격려하는 바이다.

(번역: 이민규)

32) Aland et al (eds.), *The Greek New Testament*, 3\*.

33) Cf. Omanson,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150.

34) UBS<sup>4</sup>를 동반하는 것은 Bruce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4).